

## 호스피스 시민의 날

전 재규

(본회 이사장, 계명대의대 교수)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창립된 지 어언 9개성을 지나고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 모두는 이날을 기념하고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호스피스 시민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만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며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합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우(患友)들을 존경과 신뢰와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위로해 드리는 아름다운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호스피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봉사이므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밀바탕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지난 10여 성상을 한결같이 그늘진 이면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희생적 봉사를 해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동안 쏟아 부은 우리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춘추로 시행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시민들의 인식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립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튼튼한 단체로 성장시켜 가려합니다. 이사회 산하에 실무운영회를 두고 전국 12개의 지부를 설치하여 전국적 규모로 확장하는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 3회에 걸친 자격 인증시험을 시행하여 800명 이상의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자격 인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인증시험을 거치면 1,000명이 될

뿐 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추세를 몰아 본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회 「호스피스 시민의 날」을 가지기로 결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침 때를 같이하여 「호스피스 교육 표준 교재」를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술대회도 병행하여 호스피스를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의료추세도 호스피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호스피스를 의료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호스피스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부와 의료계의 인식부족으로 다소 뒤쳐진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수용의 공감대를 이루게 될 때 의료 봉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봄과 인격적인 봉사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국가의 최고 보건의 책임자이신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님께서 직접 왕림하여 축사를 해 주심은 본 협회의 영광이며 우리 회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 처음으로 출간된 이 책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우리 협회의 발전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금번 행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와 전국 각지에서 열심을 내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